

다박솔(다복솔)이라 불리는 소나무



지정번호 당진-82-78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당진
수령 577년
수고 16m
흉고둘레 6.5m



충남 당진시
 시곡동 230
 36° 53' 17.00" N
 126° 40' 27.00" E



다박솔로 불리는 보호수(당진-8-78) 소나무는 반송의 모양으로 자라고 있다. 다박솔은 다복솔의 사투리이며, 줄기와 가지가 빈틈없게 많이 퍼져 소복하게 된 소나무이다. 흔히 반송을 일컫기도 한다. 즉 주가 되는 줄기가 없고, 등치 부위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자라서 나무갓이 우산모양을 하는 소나무다. 이곳의 소나무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다박솔이다. 아주 크게 자라 웅장하게 보이는 반송이라 부르는 것이 나올 듯하다. 소나무(다박솔)는 창녕 성씨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산에 자라고 있으며, 수군절도사를 지낸 성준길의 묘 오른쪽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18m, 가슴높이둘레는 650cm, 밑동둘레는 51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3m 정도이다. 서쪽 방향의 가지는 말라 죽어잘린 상태이고, 동쪽 방향의 가지는 말라 죽는 상태가 진행 중이다. 소나무(다박솔)는 성준길(1579~1624)이 사망 후 그의 후손이 심었다고 전하므로 나무나이가 400년 정도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577년이다. 원줄기의 1m 높이에서부터 10여 개의 커다란 가지 줄기가 퍼져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하고 있다. 나라에서 큰 번고가 있을 때마다 나뭇가지가 하나씩 말라 죽어 사건을 사전에 계시하였다는 전설이 일반적이다. 4.19학생의거와 5.16사태 및 12.6사태 당시에도 가지가 고사되었다. 나뭇가지를 자르려던 사람들이 다쳐 자연적으로 없어지곤 하였단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어느 일본인이 이 나무를 캐어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창녕 성씨 문중 및 마을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여 지켜내었다. 한편 이 소나무 바로 옆에 또 다른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위에서 기술한 소나무(다박솔, 반송)보다 전체적으로 작은 편이다.